

## Bruce Waltke 박사, 시편, 강의 2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관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시편 1편, 시편의 사악한 문입니다.

우리는 책 자체의 서문인 시편 1편을 묵상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와 같은 찬송가와 부분이 있고, 때로는 즉위 노래라고도 불리는 주님이 왕이심을 기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왕이신 분의 하위 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송가 주님 통치하심(The Lord Reigns)에서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청원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티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청원 시편에는 약 다섯 가지 뚜렷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며 종종 서론적 청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애도와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쟁입니다. 그것을 불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애도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때로는 한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윗의 시편 51편은 고백시편이 불평시편이 아닙니다. 애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44편과 같은 다른 시편에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그것이 불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개 절망의 어두운 질문 분위기를 바꾸고 그것을 청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신감에 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역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섹션, 자신감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 청원서 자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63편에는 이에 대한 청원이 항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도이지만 청원은 없습니다.

시편 63편의 해결책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단지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제가 말했듯이 어떤 형태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기도에도 찬양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찬양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찬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원 시편입니다.

자신감의 하위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과 같은 확신의 노래가 있더라도 Gunkel은 그것을 애도의 시편 등의 확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도의 시편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교훈적으로 만드는 시편에 구두점을 찍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은 간구가 아닙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시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윤리적으로 준비되기 전에는 예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손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들어가기 위해 시편 1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점은 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시편 1편을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순례자의 진로(Pilgrim's Progress)에서 그 내용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D 게이트가 아닌 T 게이트가 있는 개찰구라고 부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찰구 문이에요. 그리고 순례자는 파괴의 도시에 있었고 그 도시가 멸망할 운명임을 깨달았고 그 도시를 탈출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개찰구 문에 이르렀고, 해의 도시로 가는 길에 들어서기 전에 개찰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제3의 길도 없었습니다. 문을 통과하거나 문을 통과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편 1편을 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시편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번역을 통해, 소개를 통해 말한 것입니다. 이제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포용적 언어의 모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ish 로 인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sh가 여성과 대조적으로 남성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내 연구는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개인입니다. 그것은 개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일이었고 리더십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판단입니다. 글썬요, 포괄적인 언어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것이 NIV를 온갖 어려움에 빠뜨린 이유입니다. 번역의 문제는 대명사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나, 남자, 여자, 우리, 남자, 여자, 너, 남자, 여자, 단수, 복수, 그들, 남자, 여자. 하지만 3인칭 단수를 사용하면 그 사람인지 그녀인지 알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잠언에서 내가 말했듯이 어머니는 교훈을 받았으니 이는 신실한 교훈이 그의 입에 있기 때문이니 너는 어머니의 교훈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녀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전혀 배제되지 않았지만 번역자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 대명사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 끝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를 위해 언어로 만들어낸 중대한 위기이다. 이제 나는 옥스포드 자료에서 단수형에 대해 더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NIV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사람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변경을 하면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주님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서는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들이 법을 준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주님을 번역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야훼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할렐루야부터 판단하는 발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지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문장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I Am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는 의인의 길을 아시나 악인의 길은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하느니라. 당신이 영어로 작업하는 경우 기본은 히브리어 텍스트의 기본은 텍스트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본문비평에 참여해야 한다.

영어 박람회의 기본은 번역이며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했고, 현대인들은 행복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축복을 뜻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라흐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라카 교회는 바라크 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축복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바락(barak)을 축복한다는 뜻의 바락 (barak)이 있습니다.

아세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흐라는 말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뜻이다. 재생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신약으로 옮기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락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축복하라는 다른 단어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말은 복된 운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미래, 그 축복받은 미래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아세라를 사용하면 그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다음 페이지에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트 8페이지가 가장 좋습니다. 옅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는 이것이 아세라 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마 카이로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사람을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가 상하게도 하시고 싸기도 하시느니라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손도 낫습니다. 당신에게는 축복받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상의 도시를 주시기 위해 당신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삶과 승리를 위한 잠재력으로 당신을 채우는 단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또는 또 다른 예는 예수의 팔복에 대한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복되도다, 마카이로스 (복수형),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장래에 이 큰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것은 행복하다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전혀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그것을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행복한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번역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운명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것을 번역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나는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열려있습니다. 나는 이미 한 사람에게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번역에서 개념은 포착할 수 있지만 소리는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여기에 시편의 처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애셔 이런 애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레프입니다.

히브리어를 조금 더 배우고 싶다면 ANICE house, ANICE house, ANICE house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N을 넣은 곳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ANICE는 좋은 집이에요. N을 A와 함께 넣으면 전혀 다른 얼음집이 됩니다. 음성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영어가 아닌 음소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얼음이라고 말할 때 잡아야 하는 것은 목구멍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바로 AFH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떻게 정강이, SH와 결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애서. 당신은 그것의 k 어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이다.

그리고 그것은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교사가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며 그것이 히브리어를 배우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나는 그것을 당신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줄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에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개인이나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가 말하는 '서 있지 않다'입니다.

ESV는 죄인의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문자 그대로입니다. NIV에서 왜 변경했나요? 그 이유는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수업에는 막 그리스도께 나아온 새로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처럼 일일방학 성경학교를 다니지 않았어. 여덟 살 때 저는 시편 1편을 외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 같지만 그는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듣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죄인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했지,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고 신명기, 그것이 바로 영어가 말하는 대로, 방해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어 대 단어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가로서 저는 번역의 문제점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죄인들이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히브리어 본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 대 단어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확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등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아, 그럼 주요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식 등을 통해 곧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시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달린, 당신은 시 강좌를 가르쳐야 해요.

어쨌든, 나는 제한된 방식으로 시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가 비유적인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콘크리트입니다.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그것은 매우 고상한 말하기 스타일이며 당신이 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삶에 대한 비교라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은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와 겨의 비교이다. 다른 비교는 다른 은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배적인 은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행하라 하십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는 이 풍부한 은유가 암시하는 4개의 c로 두었습니다. 하나는 성격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특정한 방식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즉 주권적 은혜를 믿는 기본 성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향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도록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은 선하고 완전한 선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품이고 성품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c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공동체에 있고 성자들의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어 있고, 죄인을 섬기지만, 당신은 동일시되고,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특정 맥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tv에 나오는 쓰레기의 맥락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섹스와 폭력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 희망, 미덕에 대한 사랑의 맥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의 일부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갖고, 그런 맥락에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 그 자체이다.

그 길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어디로 걸어가나요? 당신의 발걸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인 결과와 행위 결과의 기본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길을 갖고 품성, 상황, 행동, 결과의 길로 걷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 클루시오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인 클루시 오라고 부르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것은 길의 은유로 시작됩니다. 방법의 은유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끝나느니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느니라. 왜냐하면 주님도 같은 맥락, 성품, 행동, 결과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그분의 길, 그분의 성품, 즉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심 같이 너희도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당신의 영과 그분의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인의 길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의 끝에서 끝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길을 잡았으며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그것들을 집어 들 때, 아마도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전을 조금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볼 때, 당신은 그 말이 참되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루는 다음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언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의인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물론 상대방을 들여보내기 위해 선상에서 양보합니다. 악인은 개입하여 상대방 앞에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불리하게 하는 반면,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불리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 합니다. 이 옥스퍼드 핸드북의 더 나은 에세이 중 하나는 Creech의 Thomas Creech입니다.

그는 피츠버그 신학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단은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인류에 관해서 의인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매우 지배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을 통해 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잘 아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매우 하나님 지향적입니다. 그 구절들은 모두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내어 그 모든 내용을 읽을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부르고 그 의에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그들은 I Am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왕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대한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들의 궁극적인 안전의 원천입니다. '내가 통치한다'는 그들의 확언은 종종 악한 통치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제시됩니다.

그것이 그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숙고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손이 깨끗하고, 하는 일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합니다. 윤리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기도하여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실까요? 그 기도가 당신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실 것처럼,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맙소사, 나에게 던져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 말고 내가 법을 할 거야. 피터처럼 보여드릴게요. 나는 당신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보세요, 의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입장은 악인과 구별됩니다. 의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면, 악인은 거의 항상 자신의 뜻에 동의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대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이득을 탐하고 악한 저주와 포기를 하는 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러한 차이는 결국 서로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낳습니다. 악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흡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악인은 포악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의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의인은 종종 악인 앞에서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주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잘못에 대해 복수할 것입니다. 의인은 결코 스스로 복수할 책임을 맡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바로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녀는 그가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 그녀는 그 점에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여성입니다.

내 말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언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한 상호 참조입니다. 가져오지 말고, 직접 하지 마세요.

시편 8편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 악인들은 스스로 복수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해요.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 단어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군요.

괜찮은. 그런데 율법, 그런데 제가 논의해야 할 세 번째 마지막 단어는 율법, 즉 토라입니다. 토라(Torah)는 기본적으로 교리교육을 의미합니다.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10계명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방식입니다.

교리문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운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토라(Torah)는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 같고, 한동안 그 당시의 가르침은 시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시편 전반에 걸쳐 토라를 보면, 그것은 항상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시편이 모세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 즉 여러분이 완전히 시내산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전으로 시온산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시내산은 시온보다 더 크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즉, 시온은 카노사를 거쳐 시내산으로 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11세기 헨리 4세의 작품입니다. 그가 그레고리오 교황과 갈등을 빚고 카노사에 와서 회개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카노사에 와서 율법을 어겼을 때 회개하고 다윗도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괜찮은. 이제 우리는 항상 시편의 논리를 다루는 수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수사학적 비판으로 이끈다. 그것은 수사학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것을 수사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겠지만, 소개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글썬요, 제가 주목한 것 중 하나는 바느질 효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석가의 임무는 하나님과 그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본문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욕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방법은 시의 아름다움, 시의 독특함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하고 플러스는 의로움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악인의 길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주님의 율법에서 가장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왕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서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입장, 플러스.

주님은 의인의 길을 아십니다. 악인의 길, 마이너스. 그래서 시의 일부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바뀌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한 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그게 내 일이에요.

좋아요. CS Lewis는 시편에 대해 성찰하면서 그 안에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회 교회에서 시성되었으며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일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인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감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의 모든 변증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를 존경하고 그가 저를 훨씬 넘어서는 만큼 우리도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시편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암시적인 시편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것을 악마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는 정말로 성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이 자수 조각, 즉 덴마크 레이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패턴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개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패턴을 따르고 싶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느질 패턴 외에도 방법에 따라 두 개의 동일한 반쪽 윤곽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부는 의인의 길이 되리라. 후반부는 악인의 길이 되리라.

그리고 그것은 동심 병렬성의 형태일 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의 길, 원인, 성품, 상황,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와 미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참여하지만 미래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나무가 있는 나무 이미지는 당신이 항상 살아있지만, 예를 들어 미래에 보상을 받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 명백히 명시된 결과를 얻게 되면, 그들은 번영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뒤집으십시오. 악인의 결과는 그들이 번영하지 못합니다. 별로. 사진에 나온 결과는 왕겨입니다.

그들은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으며 나무와는 대조적으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뒤에 있는 의인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그것을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합법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대련으로도 본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quatrains 1, 2, 3, 4, 5, 6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는 방법입니다.

즉, 그것은 1절과 2절의 길의 원인으로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현재 나무 대 쪽정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번영이 아니라 번영하는 미래에 관해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것을 세 개의 quatrains로 보는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축복받은 삶, 보상받는 삶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어떤 길, 즉 죄인의 길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서는 죄가 점진적으로 완악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바시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타바시스입니다. 아나바시스(Anabasis)는 그리스어로 '너희가 건설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Katabasis, 당신은 성장하고 있고,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나바시스를 확인하고 거기에 번역을 유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의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움직이고,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이동합니다. 높아지는거 보이시나요? 당신은 행동 방식으로 이어지는 사고 방식과 조언부터 시작합니다 .

이는 정체성과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머커의 자리에 있습니다. 점점 굳어가는게 보이시나요? 생각하는 방식부터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까지.

그리고 당신은 대부처럼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대부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굳어지는 대부가 됩니다.

이는 걷고, 서고, 앉고, 속도를 늦추는 카타바시스와 짝을 이룹니다. 보세요, 이건 정말 제게는 훌륭한 시입니다. 높아지는 것과 느려지는 것이 모두 함께 진행되어 우리가 권고를 시작으로 점점 더 죄에 강박해지고, 그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 저는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와 그의 영웅적인 견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악덕은 미움을 받지만 눈에 보일 만큼 무서운 비열한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먼저 참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포용해야 합니다.

이제 85세가 된 나에게는 동성애가 미움받을 필요가 있으면서도 눈에 띄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악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성혁명으로 우리는 그것을 익숙한 얼굴에 너무 낯설게 여겨 1970년대에는 병, 심리적 병으로

견뎠다. 그리고 빌 클린턴과 함께 1992년에 그가 동성애자를 군대에 복무시키길 원했을 때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성도를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악덕은 미움을 받아야 할 만큼 무시무시한 수단을 지닌 괴물입니다. 하지만 친숙한 얼굴에게는 너무 비취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참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동정심을 갖고, 그 다음에는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메두사로 설명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구불구불한 머리카락과 흉측한 얼굴을 가진 메두사였습니다. 신화는 심오한 통찰이었다.

메두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심장이 돌로 변한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잃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거실에 메두사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행위와 폭력을 전면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마음은 돌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은 우리가 읽는 문학의 종류와 보는 방식의 맥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사탄이 우리 거실 전체에 메두사 상자를 놓아둔 것 같습니다.

혹은 다시 설명하자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유명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킬 박사는 아주 좋은 의사로 시작했지만 자신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현을 시도했고, 반대편에 표현을 줄 가능성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독성 물질, 독소를 복용하고 밤에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술집과 술집 매음굴, 살인 등에서 사악한 하이드 씨가 될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밤, 그는 마법의 약을 복용할까 생각했지만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하이드 씨로 변해 점점 죄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이 그를 장악하고 승리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어떤 기적이 없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소망과 믿음 속에 살고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속에 산다. 좋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죄로 굳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서 인물, 성향, 맥락을 어떻게 보는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어울리나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부분과 대조적입니다. 적극적이지만 그의 기쁨은 주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왜 다윗이 율법, 가르침, 생명나무를 찾았고 사울, 바울, 일명 사울은 죽이는 칼을 발견했는지입니다. 그를. 그 이유는 사울이 율법주의자로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존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시편 사이에 긴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울이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이야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바리새인의 의미에서 전혀 의를 이해하지 못한 의인으로 오며, 시편 기자가 의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쁨, 즉 새로운 마음을 반성합니다. 그는 가르침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은 그가 주님의 율법 안에 있지만 이제 경륜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세대주의의 문제, 나는 세대주의의 가치를 이해한다. 세대주의의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자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거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솔직히 바울을 야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시편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이 있지만 빛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과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모든 것보다 훨씬 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모세의 토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 예수의 토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시편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축복받은 빛의 원인입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묵상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그것에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잠언 2장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리고 그는 먼저, 내 아들이야,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내 명령을 저장하고 저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는 너희가 택한 은과 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명상이란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씹습니다. 독일산 셰퍼드가 있는데 그게 저를 매료시킵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장 좋은 고기 조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냉장고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뭔가를 주면, 꿀꺽꿀꺽, 그게 다입니다.

소와 달리 씹는다. 성경은 그것을 꿀꺽꿀꺽 삼키는 독일 셰퍼드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씹어보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인 11페이지에서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천이라는 단어는 운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역에 대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Yarmuk 과 같은 것을 가질 수 있고 Nahal, wadi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마철에는 거칠고 파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은 완전히 빠가 말랐습니다. 아니면 범람할 수 있는 강과 같은 나하(Naha)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하의 말이다.

그리고 제 모습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운하란 무엇일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고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Zenger의 주석 중 시편 92편을 주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 시대의 것입니다.

날짜가 틀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의 날짜는 665년에서 627년 사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사원이 있고 그 앞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성전 앞 누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강이 흐르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이 온다.

그리고 나서 운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물입니다. 내 생각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줄기, 이 운하들입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생명나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편을 더 나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사진을 포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신성한 길인 비아 사크라(via sacra)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성전에 가기 전에 제물이 있는 신성한 길에 제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당신에게는 쪽정이만 있고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고 뿌리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신은 미래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쪽정이는 제때에 서지 못하다가 심판의 때가 오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데려가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앤서니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대사와 카이사르의 시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모든 자부심과  
화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쪽정이는 서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의 영에 참여함으로 견디느니라.  
그분의 영은 우리의 영과 공명하고 우리는 그와 공명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관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시편 1편, 시편의 사악한 문입니다.